

# 오름 훼손 정도 따라 분류... 4~5등급 출입 통제

## 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고시 등급별 관리방안·자연휴식년제 기준 등 담겨

앞으로 제주지역 오름이 식생 상태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이중 훼손이 심한 4~5등급 오름에선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번 지침은 오름 훼손 등급별 관리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기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훼손 정도에 따라 오름을 1~5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나지(풀과 나무가 없는 상태)가 확대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식물상 유사도가 80~100%에 이르는 오름이다.

2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15cm 미만 오름으로, 탐방로 노면에 침식이 발생했어도 수목 뿌리나 암석이 노출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가 60~80% 미만인 곳이다.

3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 15~30cm 미만에 탐방로 내부 노면 침식이

심화했거나 수목 뿌리 또는 암석이 노출된 상태인 오름에 부여된다.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는 40~60% 미만으로 설정됐다.

4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30~50cm 미만인 곳으로, 탐방로 내부에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 등 침식이 심화된 오름이 해당한다.

5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50cm 이상 훼손된 오름으로,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는 0%~20% 미만에 그치고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서 식물 등이 자라지 않으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4~5등급으로 분류돼 장기간 복원이 필요한 오름에 대해

선 '제주도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 자연휴식년제는 일반인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해 오름이 제모습을 찾도록 회복할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해제 여부는 지정 기간 만료 전 현장실사를 통해 지형·지질 복구와 식생회복도가 80% 이상 회복할 경우에 한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안내판, 휴식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해선 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정상부에는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붕괴 위험' 중학교 앞 돌담 보수공사 마쳐 정비 예산 총 3057만원 투입... 지난달 27일 완공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 앞 돌담에서 일부 돌들이 흔들리면서 붕괴 위험(본보 3월 6일 자 4면, 4월 8일 자 5면 보도)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당국이 최근 보수공사를 마쳤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제주여자중학교 정문 인근 석축의 붕괴 우려와 관련한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여자중학교는 개학 전 자체 안전점검에서 돌담 일부가 흔들리는 '배부름 현상'을 확인했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3월 26일부터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학교 앞 돌담에 '위험! 돌담 붕괴

주의'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뒤로 한 달 반가량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돌담이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원청은 긴급안전보수비를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담 보수공사는 교육청 지원 1500만원, 학교 예산 약 1557만원 등 총 3057만원이 투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점검과 예산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 '람사르 습지도시' 서귀포시 재인증 도전

### 5~8월 기후부 서면평가·현장점검 등 통과해야 연말 최종 신청서 제출... 2028년 1월 최종 확정

'람사르 습지도시' 서귀포시가 2028년 재인증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청정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람사르 습지도시' 2028년 재인증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최초 인증 이후 6년마다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성과를 재검증 받는 제도다. 이에 시는 5월 서면평가를 시작으로 6월 현장점검, 8월 발표평가를 이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3단계 심사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부 심사를 통과하면, 시는 올해 말 람사르사무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국제 심사를 거쳐 2028년 1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남원을 물영아리오름 습지를 중심으로 한 보전 성과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이후 4년간 지속적인 습지 보전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브랜드 인증 사업' ▷국내 인증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습지도시 합동 워크숍' 개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공공외교단' 및 '습지탐사대' 운영 ▷주민 참여형 '습지 생태교육'과 정기적인 '습지 조사'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습지문화제 개최 등이 있다.

현재 람사르 습지도시는 전 세계 27개국·74개 도시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개 지자체가 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 "차기 도지사, 국토부에 2공항 주민투표 요청해야" 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정부에 요청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차기 제주도지사는 취임 즉시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2공항 반대측에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차기 제주도정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는 차기 도정의 최우선 공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노동절 연휴 가파도 관광객 노동절 연휴인 1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선착장을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인기 급상승

### 제주지역 4월 말 기준 2만5600여명 가입

제주에서도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케이(K)-패스' 환급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의 도내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800여 명씩 증가(전월 대비 8.5%↑)하면서 이용 수

요와 제도 정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도내 K-패스 가입자는 4월 말 기준 2만 5627명이며, 올해 3월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매월 2000명을 넘어섰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

한 환급 제도다.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3%를 돌려받는 정률제,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 가운데 가입자별로 매월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액제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50% 낮아진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2026년 제주 건설 일용근로자 -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모집기간 : 2026.4.20.(월)~5.29.(금)(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모집대상 : 건설업 근로자 및 건설업체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제주상공회의소 070-4566-9755~7  
제주시 청사로 13(경인빌딩) 1층 (제주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접수처)

**근로자 지원대상** : 2025년도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월 평균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이며, 2026년도 현재에도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  
※ 2025년도 근로일수는 2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만 인정함

**지원 규모** : 최대 1,600명  
**지원 내용** : 지원금 25만원 지급(※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건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제주지역 건설 기업 중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도 근로자수의 평균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지원 규모** : 최대 100개사  
**지원 내용** : 지원금 100만원 지급(※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